

A Study on the Relationship among the MBTI Personality Types, Self-Efficacy, Major Satisfaction and Freshmen's Academic Achievements in Airline Service department

Mun-Kyung Kim*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was to identify the relationship among the MBTI personality types, self-efficacy, major satisfaction and freshmen's academic achievements in airline service department. To this end, a survey was conducted in 113 university freshmen of airline service department from June 18 to 29, 2018. And the data were collected their MBTI results and GPA scores. MBTI results used to analyze student's personality type.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SPSS Statistics 21.0'. Analysis methods such as frequency analysis, cross-tabulation analysis, factor analysis, reliability analysis, t-test, ANOVA,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ere used. The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The type of personality in the airline service department affects the self - efficacy such as self - control efficacy, confidence, preference of the task difficulty, and also affects the major satisfaction and the academic achievement. The self - efficacy affects the major satisfaction and the academic achievement, and also the major satisfaction can affect academic achievement. Therefore, by developing an effective teaching strategies that fits students' personality type characteristics, and by inducing motivation to learn, raising self-efficacy naturally will lead to higher major satisfaction and academic achievements.

▶ Keyword: MBTI, Self-efficacy, Major satisfaction, GPA, Airline service

I. Introduction

오늘날 우리 대학생들은 입시로 인한 치열한 경쟁에서 벗어나자마자 취업을 위한 학점 경쟁과 스펙 쌓기 등 학업스트레스가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중·고등학생 시절과는 달리 바뀐 학습 환경에 부적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대학생 2,6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학교 적응도 조사 결과 24.7%가 학업적응 어려움을 겪고 있고, 73.3%가 인관관계 부적응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1].

학업에 대한 높은 성취 요구는 학생들에게 있어 진로 및 취업에 필수적인 요소이자 스트레스의 주요인이다. 과거 대학생들의 학업 성취도를 설명하기 위해 주로 사용되었던 변인들은 지능과 같은 인지적인 능력들이었으나, 최근에는 개인적인 특성인 성격

(personality)에 관심을 두는 연구들이 많아지고 있다[2]. 성격은 인간의 신체적·심리적인 모든 요소를 통합하여 사람의 내재적 행동을 잘 나타내는 특성이라 할 수 있다[3]. Jung의 이론을 근거하여 MBTI(Myers-Briggs Type Indicator)를 개발한 Myers는 학업성과는 학습의 결과이며 성격유형에 따라 학업성도가 좌우되기 때문에 개인의 성격유형에 맞는 학습양식을 강조하였다[4].

학습자가 개인의 수행 능력에 대해 가지고 있는 기대나 신념, 즉 자기 효능감은 학습자가 아는 것과 행동하는 것 사이를 이어주는 중요한 변수로, 학습자가 새로운 상황에서 새로운 지식을 얻고 기술을 학습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원동력이 된다[5][6]. 또한 자기효능감이 높은 학생은 성취동기가 높았고, 자기효능감과

• First Author: Mun-Kyung Kim, Corresponding Author: Mun-Kyung Kim

*Mun-Kyung Kim (mkkim62@kwu.ac.kr), Assistant Professor of Dept of Airline Service, Kwangju Women's University,

• Received: 2018. 10. 26, Revised: 2018. 11. 15, Accepted: 2018. 11. 21.

학업성취도간에는 높은 상관관계가 나타나고 있다[7].

대학 전공에 대한 불만족은 대부분 학업에 적응하지 못하고, 또한 이는 학교생활에 전반에 적응하지 못하게 된다[8]. 따라서 대학생이 자신의 전공에 만족하면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고, 향후 졸업 후의 행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대학생의 전공에 대한 만족도는 중요하다[9]. 또한, 대학생의 전공만족도는 학업성취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전공에 대해 만족하는 학생은 취업을 위해 자신의 전공교과목을 중요시하고 전공교과 공부도 열심히 한다. 이로 인해 학교생활도 적극적이고 교수들이나 교수 관계를 긍정적으로 유지한다[10].

그동안 MBTI성격유형과 각 변수와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교육학과 심리학 분야에서 활발히 계속되고 있으나 실용학문전공분야에서는 아직 미비한 실정이다. 실제 전공에 따라 성격 유형 양상이 다르므로 이 연구에서는 항공서비스전공 신입생들의 성격유형과 자기효능감, 전공만족도 및 학업성취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신입생들의 성격유형에 따라 자기효능감, 전공만족도, 학업성취도는 차이가 있는지, 성격유형과 자기효능감, 전공만족도와 학업성취도 간의 영향관계는 어떻게 되는지를 검증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단순히 성격유형에 따른 학업성취도 차이를 알아보는 차원을 넘어 대학생들이 학업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성격유형에 따른 자기효능감, 전공만족도, 학업성취도 간의 영향관계를 파악하여 기질과 성격 유형 이론을 적용시킴으로써, 학생들의 학습 능력고취, 효율적인 교수학습방법 탐색 및 학습진로지도 등에 적용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고자 한다.

II. Theoretical Background

1. MBTI(Myers Briggs Type Indicator) theory

개인 성격의 차이를 보는 한 가지 방법은 기질 이론이고, 다른 하나는 심리유형학파에서 나온 성격유형이론이다. 일반적으로 성격은 “시간과 환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이며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개인의 사고, 감정,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지속적인 특성”을 말한다. 스위스 심리학자인 칼 융(Carl G. Jung)의 성격 유형 발달 이론에 따르면 아이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자신의 성격 유형 형성에 밑바탕이 되는 선천적 경향(Preference)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말한다. 이 선천적 경향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차적으로 자신의 뚜렷한 선호 경향에 따라 성격 유형을 발달시켜 나가게 되는 것이다. MBTI는 융의 심리 유형에 근거하여 캐서린 브릭스(Katharine C. Briggs)와 그녀의 딸 이사벨 마이어스(Isabel Briggs Myers)이 개발한 성격유형검사이다. MBTI는 자신과 타인의 성격 역동을 이해하는데 유용하게 쓰인다. 내향-외향, 감각-직관, 사고-감정, 판단-인식의 4가지 선호지표를 통해 개인의 타고난 성격의 경향성을 파악하며, 이들의 조합으로 16가지 성격 유형 중 한 가지 유형으로 결정되어 자기 자신에 대해 알아보는 도구이다.

1.1 The 4 types of MBTI Preference

MBTI의 4쌍의 선호 유형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외향성(Extraversion)과 내향성(Introversion)이다. E-I지표는 개인이 외부 세계 혹은 내부 세계 중 어느 세계에서 더 에너지를 얻는 방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외향을 선호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다른 사람들과 있을 때 활력이 넘친다. 반면 내향을 선호하는 사람들은 주로 혼자 내부에서 에너지를 얻는다. 두 번째 쌍의 선호 유형은 감각형(Sensing)과 직관형(Intuition)이다. S-N지표는 정보 수집, 인식 유형이다. 감각은 현실의 세계 즉, 감각에 의해 체험할 수 있는 경험사실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리고 직관은 미래에 있을 가능성이 있는 미래지향세계에 초점을 맞춘다. 세 번째 쌍은 사고형(Thinking)과 감정형(Feeling)이다. T-F지표는 우리가 판단을 내리는 과정과 관계가 있다. 두 선호 모두 합리적이다. 이 두 유형간의 주요한 차이점은 사고형은 판단을 내릴 때 객관적인 척도에 기준을 두고 판단한다는 것이고, 반면 감정형은 개인적인 가치에 기준을 두고 판단을 한다는 점이다. 네 번째는 판단형(Judging)과 인식형(Perception)이다. J-P지표는 외부세계를 받아들이는 태도 유형이다. 판단을 선호하는 사람들은 외부 세계에 대해 판단을 하거나 결론에 이르는 것이 익숙하다. 반면 인식을 선호하는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상황을 살피고, 이에 적응하려는 데 초점을 둔다. MBTI의 4쌍의 선호 유형과 이를 조합한 성격 유형 16가지를 정리하면 [그림1][그림2]와 같다.



Fig. 1. The 4 types of MBTI Preference

ISTJ Responsible Executors	ISFJ Dedicated Stewards	INFJ Insightful Motivators	INTJ Visionary Strategists
ISTP Nimble Pragmatics	ISFP Practical Custodians	INFP Inspired Crusaders	INTP Expansive Analyzers
ESTP Dynamic Mavericks	ESFP Enthusiastic Improvisors	ENFP Impassioned Catalysts	ENTP Innovative Explorers
ESTJ Efficient Drivers	ESFJ Committed Builders	ENFJ Engaging Mobilizers	ENTJ Strategic Directors

Fig. 2. The 16 types of MBTI

1.2 The 4 types of MBTI Temperament

기질 이론에 의하면, 사람들은 태어나면서 자신에게 발달 가능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결정짓는 기본 프레임을 지닌 채 태어난다. 이와 같은 성격이론에서 사람은 특정한 기질을 발달시키고자 한다. Keirseyy는 그의 연구에서 “개인의 기질은 인간 각각의 행동에서 나타나는 서명이나 지문과 같고, 이는 자신의 고유함을 인식할 수 있게 한다.” 라고 하였고, MBTI 성격 유형의 선호경향을 인식할 수 있고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일정한 행동-패턴 기질 유형으로 나누고 이에 따라 학습 양식이 달라진다고 하였다. 그가 나눈 4가지 학습 기질은 [표1]과 같다. 첫째로 SP형은 예술가기질로 Myers의 감각인식형과 관계가 있으며 자유와 활동, 자극과 변화를 추구한다. 두 번째 SJ형은 보호자기질로 감각판단형으로 공동체의식과 소속감, 책임감과 의무를 추구하는 유형이다. NT형은 합리론자기질로 직관 사고형과 관계가 있으며 지식과 능력, 의지력과 전문성을 추구한다. 마지막 NF형은 이상자기질로 직관 감정형으로 정체성과 자기실현, 의미와 중요성을 추구한다[11].

Table 1. The 4 types of MBTI Temperament

Types	Learning Temperament
SP type	Actual-Spontaneous learner
SJ type	Actual-Routine learner
NT type	Conceptual-Specific learner
NF type	Conceptual-Global learner

2. Advanced Research

2.1 Self efficacy

Bandura(1977)는 자기효능감이란 개인이 자신에 대한 긍정적 감정을 가지고 어떤 결과를 얻는데 필요한 행동을 성공적으로 이끌고 수행할 수 있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신념이라고 정의하였다[6]. 또한 자기효능감은 학습자가 과제를 수행하는 데 있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에 대한 판단으로, 대학 입학 후 학생들의 학업적 성취를 확인할 수 있는 대표적인 요인 중의 하나이다[5].

자기효능감과 학업성취에 관한 연구에서는 자기효능감이 높은 학습자들이 그렇지 않은 학습자들에 비해 자신의 수행에 높은 기대감을 느끼며, 도전적인 과제를 선택하고, 더 많이 노력하며 끈기있게 지속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기효능감은 성취동기를 높이고, 학업적 수행 및 성취도에 영향을 주어 학습 능력과 수행을 매개한다고 밝혀졌다[5]. 김아영은 특히 자기효능감의 하위 척도 중 자기조절효능감이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주는데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7]. 성격유형과 자기효능감에 대한 연구에서는 최연택과 한채수는 학생들의 성격유형에 따라 자기효능감이 차이가 있다고 하였다[12].

2.2 Major satisfaction

전공만족도 연구에서 전공만족을 “개인이 선택한 진로나 직업에 대한 기준과 비교하여 현재 자신이 선택한 전공을 평가하는 판단 과정의 산물”이라고 정의하며, 전공대학 교육 과정을 들여다보는

시작이 될 수 있으며 대학생의 진로와 취업 준비에 도움이 된다[13]. 전공만족도와 학업성취도에 대한 연구들에서 전공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학업성취도가 높다는 결과들이 나타났다[14][15].

2.3 Academic achievement

교육심리학용어사전(2000)에 따르면 학업성취란 학생들이 학교 교과목에서 얻은 점수로 평가되는데 학습에 의해서 얻어진 능력이나 교육 목표가 얼마나 달성했는지 알아볼 수 있는 성과로서 공정하고 구체적인 방법으로 평가하고 측정한 교과 성적이라 할 수 있다. 학업성취도는 다양한 수업관련 변인과 학습자 개인변인, 교육 환경 변인 등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리학, 교육학 분야의 수많은 연구에 학습자의 성격 유형이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가 이어졌다. Myers & McCaulley(1985)의 연구에서 보면 고등학생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성격유형 중 내향형(I), 판단형(J), 직관형(N)을 가진 학생이 각각 외향형(E), 인식형(P), 감각형(S)을 가진 학생보다 학업성취도가 높았다는 결과를 나타났다. 즉 성격 유형이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보여준다[4]. 김구배 외 3인(2008)은 판단형(J)과 인식형(P) 성격 유형이 회계학 학업 성취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인이라고 하였다[3].

III. Study Design

1. Establishing the Analysis Model and Setting the Hypothesis

본 연구에서는 성격유형이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12], 성격유형이 전공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2], 성격유형이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4], 자기효능감이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7], 전공만족도가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15]를 바탕으로 성격유형과 자기효능감, 전공만족도, 학업성취도 간의 영향관계를 알아보고자 [그림3]과 같은 연구 모형을 설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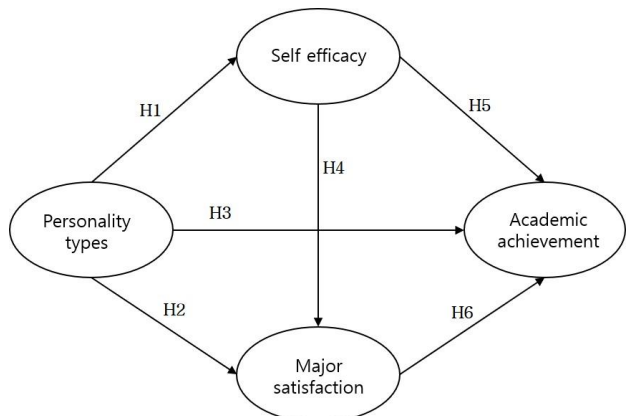


Fig. 3. Research Model

이 연구의 목적은 항공서비스학과 신입생들의 성격 유형, 자기효능감, 전공만족도, 학업성취도 간의 영향관계를 규명하는데 있다. 성격유형이 자기효능감과 전공만족도와 학업성취도에, 자기효능감이 전공만족도와 학업성취도에, 전공만족도가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연구 가설은 다음과 같다.

- 가설1. 신입생의 성격유형은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2. 신입생의 성격유형은 전공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3. 신입생의 성격유형은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4. 신입생의 자기효능감은 전공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5. 신입생의 자기효능감은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6. 신입생의 전공만족도는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2. Measuring the Variables

첫 번째 변수인 성격유형은 93문항으로 이루어진 16PF에서 발행한 MBTI Form M 자가채점용 검사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MBTI 성격유형지표는 에너지 방향에 따른 외향형(E)-내향형(I), 인식기능에 따른 감각형(S)-직관형(N), 판단기능에 따른 사고형(T)-감정형(F), 생활양식에 따른 판단형(J)-인식형(P) 등 4가지 선호경향으로 구성되어 각 선호경향이 조합된 MBTI 성격유형은 16가지로 구분된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MBTI 단일선호지표 별 분석 외에 Keirsey연구에 따라 기질로 나눈 4가지 유형의 성격 기질별 분석도 하였다.

두 번째 변수인 자기효능감은 학습자가 자신의 능력에 대해 어떤 신념을 가지고 있는지를 측정하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자기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해 차정은(1997)이 개발한 일반적 자기효능감 척도를 수정하여 이용하였다. 자기효능감은 자기조절효능감, 자신감, 과제 난이도 선호도 3가지 하위 요인을 포함하는 24개 문항으로 Likert 5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 5:매우 그렇다)로 측정하였다. 측정도구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설문 결과를 대상으로 요인분석(Factor analysis)을 수행하였다. 요인 추출방법은 주성분분석(Principal Component Procedure)을, 회전방법은 배리맥스(varimax)방식을 이용하여 아이겐값(eigen value)이 1이 넘는 요인을 추출하였다. 요인분석 결과 요인적재값이 0.4미만인 2개 항목을 삭제하였고, 자기조절효능감 10문항, 자신감 7문항, 과제 난이도 선호 5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KMO값은 0.811, Bartlett 구형성 검정치는 1012.004(p=0.00), 총분산설명력은 50.34%로 요인분석으로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내적 일관성을 측정하기 위해 신뢰도 분석결과 Cronbach's α 값은 0.837, 0.849, 0.822로 신뢰성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 번째 변수인 전공만족도는 전반적인 전공만족도를 Likert 5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2:그렇지 않다, 3:보통이다, 4:그렇다, 5:매우 그렇다)로 측정하였다.

네 번째 변수인 학업만족도는 신입생들의 2018학년도 1학기 성적(GPA:Grade Point Average)으로 성적 시스템을 통해 측정하였다. A+는 4.5점, A0는 4.2점, A-는 4.0점, B+는 3.6

점, B0는 3.3점, B-는 3.0점, C+는 2.6점, C0는 2.3점, C-는 2.0점, D+는 1.6점, D0는 1.3점, D-는 1.0점을 부여하여 받은 교과목들의 성적 평점 평균을 산출하여 적용하였다. 평점의 최대값은 4.5, 최소값은 1.0으로 측정되었다.

IV. Empirical Analysis

1. Selection and Feature of Sample

본 연구는 광주광역시 소재 K여대 항공서비스학과 1학년 학생(편입생의 경우 3학년 포함)을 대상으로 하여 2018년 6월 18일부터 29일까지 120부 설문을 실시하였다. 회수된 설문지 중 불성실 응답 설문지와 중도 자퇴생(성적결과가 나오지 않음)을 제외하고 113부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Statistics 21.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빈도분석, 교차분석, 요인분석, 신뢰도분석, t-검정, 분산분석(ANOVA), 다중회귀분석(Regression)등의 분석방법을 사용하였다.

Table 2. Frequency Analysis of the 4 types of MBTI Preference

	preference	frequency(%)	total
E-I	Extraversion	89(78.8)	113(100)
	Introversion	24(21.2)	
S-N	Sensing	71(62.8)	113(100)
	iNtuition	42(37.2)	
T-F	Thinking	29(25.7)	113(100)
	Feeling	84(74.3)	
J-P	Judging	55(48.7)	113(100)
	Perception	58(51.3)	

[표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연구 대상 표본의 성격유형은 주로 외향형(78.8%), 감각형(62.8%), 감정형(74.3%)으로 나타났고, 판단형과 인식형은 48.7%와 51.3%로 비슷하게 나타났다. 기질별 성격유형 비율은 SJ형(31.9%)–SP형(31.0%)–NF형(28.3%)–NT(8.8%)순으로 나타났다[표3].

Table 3. Frequency Analysis of the 4 types of MBTI Temperament

Types	frequency(%)
SP type	35(31.0)
SJ type	36(31.9)
NT type	10(8.8)
NF type	32(28.3)
total	113(100)

응답자들의 MBTI 16가지 성격유형을 분석한 결과 ESFP형(20.4%), ESFJ형(17.7%), ENFP형(11.5%), ENFJ(11.5%) 등

이 과반수 이상 차지하고 있고, 다른 유형들은 소수들로 이루어져 있다[표4]. 이는 전체의 40%가 ISTJ형(25%), ESTJ형(15%)으로 구성된 2004년 한국심리검사연구소에서 발표한 한국인의 성격 유형 분포도[그림4]와 차이가 있는 결과이다.

Table 4. Frequency Analysis of the 4 types of MBTI

		S		N	
		T	F	F	T
I	J	ISTJ	ISFJ	INFJ	INTJ
		2(1.8)	5(4.4)	3(2.7)	3(2.7)
	P	ISTP	ISFP	INFP	INTP
		3(2.7)	4(3.5)	3(2.7)	1(0.9)
E	P	ESTP	ESFP	ENFP	ENTP
		6(5.3)	23(20.4)	13(11.5)	5(4.4)
	J	ESTJ	ESFJ	ENFJ	ENTJ
		8(7.1)	20(17.7)	13(11.5)	1(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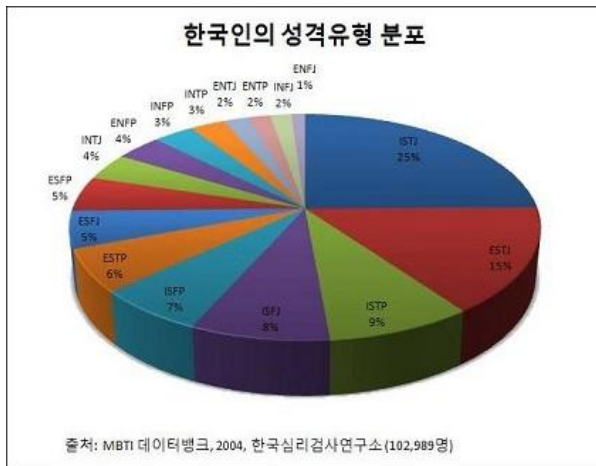


Fig. 4. Frequency Analysis of Korean's 4 types of MBTI

2. Verifying the Hypothesis

2.1 Analysis of differences according to personality types

응답자들의 MBTI 성격유형 선호경향에 따른 자기효능감, 전공만족도, 학업성취도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t-검정을 실시하였다.

MBTI의 4가지 선호경향에 따른 각 지표별 자기효능감의 차이 t-검정 결과는 [표5]와 같다. 자기효능감의 하위 항목인 자기조절효능감에서는 내향형(I)과 외향형(E), 감각형(S)과 직관형(N), 판단형(J)과 인식형(P)이, 자신감에서는 내향형(I)과 외향형(E), 판단형(J)과 인식형(P)이, 과제난이도선호도에서는 내향형(I)과 외향형(E), 감각형(S)과 직관형(N), 판단형(J)과 인식형(P)이 유의적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형(T)과 감정형(F)의 경우에는 자기조절효능감, 자신감, 과제난이도선호도 모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Table 5. Self-efficacy t-test

		variables	mean	Std. Deviation	t value (Sig.)	
self-efficacy	self-regulated efficacy	I	3.73	.431	-1.772	
		E	3.90	.405	(.079)*	
		S	3.93	.436	2.278	
		N	3.75	.352	(.025)**	
	self-confidence	T	3.83	.377	-.502	
		F	3.87	.429	(.616)	
		J	3.96	.428	2.577	
		P	3.77	.382	(.011)**	
	task difficulty of preference	I	E	3.11	.736	-3.049
			S	3.55	.591	(.003)***
			N	3.53	.662	1.494
			T	3.34	.609	(.138)
E		F	3.45	.683	-.090	
		J	3.46	.638	(.928)	
		P	3.60	.579	2.323	
		T	3.32	.683	(.022)**	

***:p<.01, **:p<.05, *:p<.10

MBTI 성격유형 선호경향에 따라 전공만족도의 차이가 있는지 검증한 분석결과는 [표6]과 같다. 4가지 선호경향 지표 중 감각형(S)과 직관형(N)만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내향형(I)과 외향형(E), 사고형(T)-감정형(F), 판단형(J)-인식형(P)의 성격유형에 따른 전공만족도는 유의적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6. Major-Satisfaction t-test

		variables	mean	Std. Deviation	t value (Sig.)
Major Satisfaction	I	E	4.04	.690	-1.427
		S	4.28	.738	(.156)
	E	N	4.32	.732	1.789
		T	4.07	.712	(.076)*
	S	F	4.24	.739	.096
		J	4.23	.734	(.924)
	N	P	4.33	.747	1.380
		T	4.14	.712	(0.170)

***:p<.01, **:p<.05, *:p<.10

응답 학생들의 MBTI 성격유형에 따른 학업성취도 차이 t-검정 결과는 [표7]에서 보는 바와 같다. 4가지 선호 경향 지표는 판단형(J)과 인식형(P)의 성격 유형만이 학업성취도 차이가 유의적으로 나타났으며, 판단형(J) 학생들이 인식형(P) 학생들보다 평점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Table 7. Academic Achievement(GPA) t-test

	variables	mean	Std. Deviation	t value (Sig.)
GPA	I	3.50	.440	1.275
	E	3.36	.477	(.205)
	S	3.41	.490	0.544
	N	3.36	.440	(.588)
	T	3.38	.630	-.110
	F	3.39	.406	(.912)
	J	3.48	.525	2.147
	P	3.30	.396	(0.034)**

***:p<.01, **:p<.05, *:p<.10

2.2 Regression analysis result

항공서비스학과 1학년 학생들의 MBTI 성격유형 선호경향과 자기효능감에 대한 [가설 1]의 회귀분석 검증 결과는 [표8]과 같다. 자기효능감의 하위 항목인 자기조절효능감, 자신감, 과제난이도선호도에 영향을 미치는 성격유형을 알아보면, 첫째 성격유형 선호경향 중 인식기능(X₂:감각형(S)-직관형(N))과 생활양식(X₄:판단형(J)-인식형(P))이 자기조절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각형(S) 학생이 직관형(N)학생보다, 판단형(J)학생이 인식형(P)학생보다 자기조절효능감이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자신감에는 에너지방향(X₁: 내향형(I)-외향형(E)), 생활양식(X₄:판단형(J)-인식형(P))에서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향형(E)학생이 내향형(I)보다 판단형(J)이 인식형(P)보다 자신감이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과제난이도선호도는 인식기능(X₂:감각형(S)-직관형(N))과 생활양식(X₄:판단형(J)-인식형(P))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관형(N)학생이 감각형(S)학생보다 판단형(J)학생이 인식형(P) 보다 쉬운 과제보다는 어려운 과제를 선호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특이한 사항은 판단기능 변수 X₃(사고형(T)-감정형(F))는 자기효능감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8. Test of hypothesis (H1)

Model	Unstandardized Coefficients		Standardized Coefficients	t	Sig.	
	B	Std. Error				Beta
self-regulated efficacy	(Constant)	-.406	.185		-2.198	.000***
	X ₁	-.224	.226	-.092	-.992	.324
	X ₂	.434	.189	.211	2.294	.024**
	X ₃	-.034	.211	-.015	-.159	.874
	X ₄	.390	.183	.196	2.134	.035**
		Adjusted R ² = .059		F= 2.763(.031)**		
self-confidence	(Constant)	-.190	.182		-1.040	.000***
	X ₁	-.669	.223	-.275	-2.999	.003***
	X ₂	.267	.187	.129	1.430	.156
	X ₃	.017	.208	.008	.083	.934
	X ₄	.328	.180	.165	1.89	.072*
		Adjusted R ² = .085		F= 3.606(.008)***		
task difficulty of	(Constant)	.365	.177		2.056	.000***

preference	X ₁	-.336	.217	-.138	-1.550	.124
	X ₂	-.746	.182	-.362	-4.109	.000***
	X ₃	.083	.203	.036	.409	.684
	X ₄	.317	.175	.159	1.804	.074*
		Adjusted R ² = .134		F= 5.343(.001)***		

- 1) ***:p<.01, **:p<.05, *:p<.10
- 2) X₁: I=1, E=0 dummy variable
- X₂: S=1, N=0 dummy variable
- X₃: T=1, F=0 dummy variable
- X₄: J=1, P=0 dummy variable

전공만족도를 종속변수로 하고, 학생들의 성격유형 선호경향에 따른 영향 관계를 검증하고자 하는 [가설2]의 분석 결과는 [표9]와 같다. 전공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성격유형 선호경향은 인식기능(X₂:감각형(S)-직관형(N))으로 감각형(S)학생이 직관형(N)학생보다 전공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성격유형 선호경향은 전공만족도에 유의적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9. Test of hypothesis (H2)

Model	Unstandardized Coefficients		Standardized Coefficients	t	Sig.	
	B	Std. Error				Beta
Major Satisfaction	(Constant)	4.026	.138		29.261	.000***
	X ₁	-.245	.168	-.138	-1.459	.147
	X ₂	.238	.141	.158	1.690	.094*
	X ₃	.040	.157	.024	.254	.800
	X ₄	.197	.136	.135	1.449	.150
		Adjusted R ² = .028		F= 1.806 (.000)***		

- 1) ***:p<.01, **:p<.05, *:p<.10
- 2) X₁: I=1, E=0 dummy variable
- X₂: S=1, N=0 dummy variable
- X₃: T=1, F=0 dummy variable
- X₄: J=1, P=0 dummy variable

성격유형 선호경향에 따른 학업성취도에 대한 [가설3]의 회귀분석 검증결과는 [표10]과 같다. 성격유형 중 생활양식 변수인 X₄(판단형(J)-인식형(P))에서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판단형(J)학생이 인식형(P)학생보다 학업성취도가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Table 10. Test of hypothesis (H3)

Model	Unstandardized Coefficients		Standardized Coefficients	t	Sig.	
	B	Std. Error				Beta
GPA	(Constant)	3.245	.089		36.539	.000***
	X ₁	.133	.109	.116	1.221	.225
	X ₂	.053	.091	.055	.586	.559
	X ₃	-.030	.101	-.028	-.293	.770
	X ₄	.180	.088	.192	2.050	.043**
		Adjusted R ² = .020		F= 1.583 (.000)***		

- 1) ***:p<.01, **:p<.05, *:p<.10
- 2) X₁: I=1, E=0 dummy variable
- X₂: S=1, N=0 dummy variable
- X₃: T=1, F=0 dummy variable
- X₄: J=1, P=0 dummy variable

그러나, 단일선호지표 별 분석 외에 기질로 분석한 4가지 유형 (SP/SJ/NT/NF)을 더미변수로 변환하여 독립변수로, 자기효능감, 전공만족도, 학업성취도를 각각 종속변수로 한 추가적 회귀분석을 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기효능감 중 자기조절효능감에서는 유의수준 10%(.057)에서 SJ형이 SP형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감에서는 유의수준 5%(.033)에서 SJ형이 SP형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과제난이도선호도에서는 유의수준 5%(.033)에서 NT가 SP보다, 유의수준 1%(.000)에서 NF가 SP보다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전공만족도에서는 유의수준 5%(.038)에서 SJ형이 SP형, NT형, NF형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학업성취도에서는 유의수준 10%(.092)에서 SJ형이 SP형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Keirse(1984)의 연구에 따르면 SJ, SP, NT, NF 기질로 나눈 4가지 기질 분석 유형이 학습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하였다.

전공만족도를 종속변수로 하고, 자기조절효능감, 자신감, 과제난이도선호도 등의 자기효능감 변수를 독립변수로 하여 자기효능감이 전공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가설4]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는 [표11]과 같다. 다른 독립 변수와 달리 자기조절효능감 변수인 X₁₁에서만 전공만족도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조절효능감이 높은 학생들이 전공만족도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Table 11. Test of hypothesis (H4)

Model		Unstandardized Coefficients		Standardized Coefficients	t	Sig.
		B	Std. Error			
Major Satisfaction	(Constant)	4.230	.067		62.793	.000***
	X ₁₁	.172	.068	.235	2.538	.013**
	X ₁₂	.061	.068	.083	.898	.371
	X ₁₃	.060	.068	.082	.888	.376
	Adjusted R ² = .043		F= 2.680 (.000)***			

- 1) ***:p<.01, **:p<.05, *:p<.10
- 2) X₁₁: self-regulated efficacy variable
X₁₂: self-confidence variable
X₁₃: task difficulty of preference variable

자기효능감에 따른 학업성취도에 대한 [가설5]의 회귀분석 검증결과는 [표12]과 같다. 전공만족도와 마찬가지로 자기조절효능감 변수인 X₁₁에서만 학업성취도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조절효능감이 높은 학생들이 학업성취도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자신감 변수와 과제난이도선호도 변수는 학업성취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나타내지 못했다.

Table 12. Test of hypothesis (H5)

Model		Unstandardized Coefficients		Standardized Coefficients	t	Sig.
		B	Std. Error			
GPA	(Constant)	3.387	.044		77.245	.000***
	X ₁₁	.100	.044	.212	2.271	.025**
	X ₁₂	-.004	.044	-.009	-.096	.924
	X ₁₃	.008	.044	.018	.190	.849
	Adjusted R ² = .019		F= 1.734 (.000)***			

Model		Unstandardized Coefficients		Standardized Coefficients	t	Sig.
		B	Std. Error			
GPA	(Constant)	2.483	.247		10.052	.000***
	Major Satisfaction	.214	.058	.332	3.711	.000***
	Adjusted R ² = .102		F= 13.768 (.000)***			

- 1) ***:p<.01, **:p<.05, *:p<.10
- 2) X₁₁: self-regulated efficacy variable
X₁₂: self-confidence variable
X₁₃: task difficulty of preference variable

마지막으로 상관관계가 높은 전공만족도와 학업성취도 변수 관계에서 전공만족도는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6]의 회귀분석결과는 [표13]과 같다. 유의수준 1%에서 전공만족도는 학업성취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13. Test of hypothesis (H6)

Model		Unstandardized Coefficients		Standardized Coefficients	t	Sig.
		B	Std. Error			
GPA	(Constant)	2.483	.247		10.052	.000***
	Major Satisfaction	.214	.058	.332	3.711	.000***
	Adjusted R ² = .102		F= 13.768 (.000)***			

- ***:p<.01, **:p<.05, *:p<.10

V. Conclusions

이 연구의 목적은 항공서비스학과 신입생들의 성격유형과 자기효능감, 전공만족도 및 학업성취도의 영향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데 있다. 이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응답자들의 성격유형은 각 선호지표 중 주로 외향형 (E) 78.8%, 감각형(S) 62.8%, 감정형(F) 74.3%으로 나타났고, 생활양식 선호지표는 판단형(J)와 인식형(P)이 48.7%와 51.3%로 비슷하게 나타났다. 또한 응답자들의 MBTI 16가지 성격유형을 분석한 결과 ESFP형이 20.4%로 가장 많았다. ESFP유형은 외향적 감각형으로 우호적이고 적응력이 있는 현실주의자들이다. 항공서비스학과 학생들은 향후 항공사 승무원이라는 직업을 목표로 하고 있는 특성상 특히 사람들을 접하는 일에 능숙하며, 사람이나 사물을 다루는 사실적인 상식이 풍부한 특징을 가진 ESFP형이 많은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4가지 선호경향에 따른 각 지표별 자기효능감 차이 분석에서는 부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자기조절효능감에서는 외향형(E), 감각형(S), 판단형(J)이, 자신감에서는 외향형(E), 판단형(J)이, 과제난이도선호도에서는 외향형(E), 직관형(N), 판단형(J)이 더 높은 자기효능감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

다. 또한 MBTI 성격유형 선호경향이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은 부분적으로 가설이 지지되었다. 자기조절효능감은 감각형(S) 학생이 직관형(N)학생보다, 판단형(J)학생이 인식형(P)학생보다 높았다. 자신감은 외향형(E)학생이 내향형(I)보다 판단형(J)이 인식형(P)보다 자신감이 더 높았다. 과제난이도선호도는 직관형(N)학생이 감각형(S)학생보다 판단형(J)학생이 인식형(P)보다 어려운 과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성격 유형이 전공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부분적으로 가설이 지지되었다. 전공만족도는 감각형(S)학생이 직관형(N)학생보다 높았다.

넷째, 성격유형 선호경향이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은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다. 판단형(J)학생이 인식형(P)학생보다 학업성취도가 더 높았다. 기질 분석 유형에 따른 전공만족도와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은 기질을 나타내는 두가지 선호지표 조합 중 SJ형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자기효능감이 전공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부분적으로 가설이 지지되었다. 자기조절효능감만 전공만족도에 유의적인 영향을 주었고, 자신감과 과제난이도선호도는 전공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없었다.

여섯째, 자기효능감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은 부분적으로 가설이 지지되었다. 전공만족도와 마찬가지로 자기조절효능감이 학업성취도에 유의적인 영향을 주었다.

일곱째, 신입생의 전공만족도가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은 지지되었다.

결론적으로, 항공서비스학과 신입생들 성격유형은 자기조절효능감, 자신감, 과제난이도선호도 등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고 또한 전공만족도 및 학업성취도에도 영향을 미치며, 자기효능감은 전공만족도와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고, 전공만족도는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다양한 변수들로 구성되어 있어 변수간의 관계를 일반화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하지만, 해당학과 신입생들의 성격유형 특성에 맞는 효과적인 교수법을 개발하고 학습 동기를 유발하여 자기효능감을 높이면 자연스럽게 전공만족도와 학업성취도도 높아질 것이다. 이 연구는 기존의 교육학과 심리학 분야에서만 활발히 연구되어 온 것을 성격유형이 다양한 학생들로 구성된 실용학문전공 분야의 연구라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아울러 신입생부터 4학년까지 자기효능감, 전공만족도 및 학업성취도 간의 영향 관계를 추적 조사하여 연구하면 학생들의 학습 능력 고취, 효율적인 교수학습방법 탐색 및 진로학습지도에 시사하는 바가 높아질 것이다.

이 연구의 표본대상이 특정 대학교 1학년에 국한되고, 성별도 여성으로만 한정된 점, 그리고 표본의 크기도 크지 않다는 점에서 연구의 한계점이 있다. 향후 연구의 대상을 확대하고 타 전공과의 차이, 성별 등 여러 변수들을 고려하고 아울러 신입생부터 4학년까지 변수들 간의 영향 관계를 추적 조사하여 연구를 진행한다면 학생들의 학습 능력 고취, 효율적인 교수학습방법 탐색 및 진로학습지도에 기여할 수 있는 더 나은 연구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REFERENCES

- [1] Oh hye-young, "The Design Study for Psychological crisis of an University student and Projects supporting character development", 2018.
- [2] Song Misop, "University students' Personality, Major and Academic Achievement" The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Vol. 34, No. 1, pp. 113-129, 1996.
- [3] Kim ku-bae, Shin gab-yong, Lee bog-suk and Oh hee-hwa, "The Effect of Academic Achievement on Personality Type and student Learning in Principles of Accounting" The Industry Economy Research, Vol. 22, No. 2, pp. 579-598, 2009.
- [4] Myers & McCauley, "A Guide to Development and Use of the MBTI", Consulting Psychologists Press, pp. 80, 1985.
- [5] Bandura, A., Social foundation of thought and action: A social cognitive theory, Englewood Cliffs, NJ: Prentice Hall, 1986.
- [6] Bandura, A., "Self-efficacy: Toward a unifying theory of behavioral change", Psychological Review, pp. 191-215, 1977.
- [7] Kim a-young & Cha jung-eun, "Multi-level Analysis of the Effects of Teacher-efficacy and Students' Academic Self-efficacy on Academic Achievement", The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Vol. 17, No. 2, pp. 25-43, 2003.
- [8] Kay-Hyon Kim & Hye-Suk Ha, "A Study of Department Satisfaction Factors of Undergraduate Students", Korean Counseling Association, Vol. 1, No. 1, pp. 7-20, 2000.
- [9] Yun-Kyung Au, "The relation between the career counseling activity, college student's major satisfaction and career maturation: Regulating effect of decision-making criterion for major", Korea Journal of Counseling, Vol. 12, No. 2, pp. 1793-1811, 2011.
- [10] Eun-Hwa Lee, Seung-Hee Kang, "A Study on the difference of Learning conditions and the need of study skills training based on satisfaction in their major",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Vol. 16, No. 4, pp. 117-143, 2009.
- [11] Keirse, D., and M. Bates. "Please Understand Me: Character and Temperament Types, 5th ed. Del Mar, Calif. : Prometheus Nemesis, 1984.
- [12] Yeon-Taek Choi & Chae-Soo Ha, "Research on academic personality self-efficacy: Based on personality types of Korea Enneagram", Journal of Enneagram Studies, Vol. 7, No. 2, pp. 159-179, 2010.
- [13] Kim KH, Ha HS: A Study of Department Satisfaction Factors of Undergraduate Students. Korean J Counseling 1(1), pp. 7-20, 2000.

- [14] Yun-Kyung Au, "The relation between the career counseling activity, college student`s major satisfaction and career maturation: Regulating effect of decision-making criterion for major", Korea Journal of Counseling, Vol. 12, No. 2, pp. 1793-1811, 2011.
- [15] Seong-Eun Heo, "Convergence Study on Major Satisfaction and Academic Achievement Depending on the Characteristics of Community Service Experience in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 7. No. 4, pp. 85-96, 2016.

Authors



Mun-Kyung Kim completed a doctoral course in Tourism department from Kyung-hee University, Korea, in 2018. She is currently an assistant professor in the Dept. of Airline Service at Kwangju Women's University.